

# 부산시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업무환경과 업무량에 관한 조사연구

—지산간호보건전문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지산간호보건전문대학 물리치료과  
노영철, 백종민

## ABSTRACT

### Study of Physical Therapist Work Conditions and Work Load in Pusan Area Hospital

Noh Young Cheol, Paik Jong Min

*Dept. of Physical Therapy, Jisan Junior College*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present work condition and work load of the physical therapists in Pusan area hospital. A questionnaire was given 155 registered physical therapists who was graduated from Jisan Junior Colleg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Feb. 1 to 13, 1988 using the questionnaire method and was analyzed by the use of percentage.

The summarized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

#### 1. General characteristics

155 therapists(male 18.1%, female 81.9%), chief therapists were 68.4%, staff therapists were 31.6% and mean worked experience was before 1 year.

#### 2. Work condition

##### 1) The mean worked hours a week ;

A large teaching hospital ; 44~51 hours

Hospital ; 51~64 hours

Private Clinic ; 51~72 hours

##### 2) Total mean salary was 284,000 won a month.

#### 3. Work enviroment and work load.

##### 1) The mean therapy room area was 17.2 pyong.\*

##### 2) The number of mean patient treated to 43.8 of each facilities per a day.

##### 3) The most frequently symptom was low back pain.

##### 4) The mean number of therapist was one who was employed private clinic(64.2%)

##### 5) The mean number of patients treated per a therapist 28.1 a day.

##### 6) The maximum acceptable number of patient per physical therapist in total worked hours, averaged over a day should not exceed 15~20(64.6%).

\* A pyong, land measure of six chuck square(3.3 m<sup>2</sup>)

## 차 례

### I. 서 론

#### II.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기간 및 대상
2. 조사도구 및 방법
3. 제한점

#### III. 조사성적 및 고찰

1. 일반적인 특성
2. 업무조건
3. 업무환경 및 업무량
4. 현근무지 인식

### IV. 결 론

참고문헌

## I. 서 론

산업후기 사회<sup>9)</sup>로의 변천에 따라 우리사회는 가속적인 변동과 발전이 이루어지며, 직업의 다양화, 전문화가 더욱 진행되어 상이한 직종간의 상대적 격차는 축소되어 가고, 각 직종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공존해가는 추세이다.<sup>2)</sup> 특히 전문적인 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 변화에 관한 지식과 기술, 정보의 증가에 따라 보조적 업무수행자인 의료기사의 역할이 병원조직체의 성과달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10)</sup>

한편 의학분야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예방의학과 치료의학 못지않게 재활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의료의 책임한계가 종래보다 확대되어 가고 있다.<sup>11)</sup> 그동안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발달로 급만성 전염병은 감소하였으나, 복합요인에 의한 성인병환자의 증가, 노인 인구의 증가, 기계문명 발달에 의한 산업사고 및 교통사고 증가 등 치료를 요하는 심신장애자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sup>4)</sup> 이들 장애자의 치료는 국소에 한 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독립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의학이 발전되었다. 1941년 미국재활심의 위원회는 재활이란, 가능한 최대한도까지 장애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및 경제적 유용성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재활치료는 중추신경계의 장애, 말초신경계 장애, 근육, 골, 관절질환 등으로 인한 운동장애와 고차적 뇌 기능장애로 인한 실어증, 실행증, 실인증 등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통해서 이들 각종

장애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위해서 재활의 기본방침을 정하여<sup>8)</sup> 의사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언어치료사, 사회사업사, 작업재활 전문가 등 여러분야에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공동작업이 중시된다.<sup>3)</sup> 이 재활의학 분야의 일원으로, 장애자로 하여금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물리치료사가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효과적인 진료 서비스에 기인되고, 진료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크게 인식되고 있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재활원의 물리치료사의 임무는 각 진료과에서 재활의학과 또는 물리치료실로 의뢰된 환자를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직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sup>6)</sup>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에 속하는 여러 직종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나, 물리치료사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더욱이 물리치료사의 업무환경과 업무량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에 대한 업무환경과 업무량을 평가하여 이들의 작업환경과 근무조건에 대한 개선과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질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 II. 조사대상 및 방법

### 1. 조사기간 및 대상

본 연구는 1988년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부산직할시내의 115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지산간호보건 전문대학 물리치료과를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167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 중에서 본 조사와 무관한 직종의 근무자 12명을 제외한 155명으로 하였다.

### 2. 조사도구 및 방법

물리치료사의 업무환경과 업무량을 알기위한 설문지를 도구로 하여, 직접방문을 통해 설문지 작성법을 교육하고, 2~5일 후에 직접 회수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문항, 업무환경 9문항, 현근무지 인식 5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하였다.

### 3. 제한점

본 연구는 지산간호보건 전문대학 물리치료과를 졸업하고 물리치료 면허를 획득한 부산시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물리치료사에게 일반화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 Ⅲ. 조사성적 및 고찰

### 1.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 총 155명 중 남자는 18.1%이며 여자는 81.9%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부산시내 115개소, 대상자수 155명이었으며, 그 중 개인 의원 근무자가 50.3%로 가장 많았고, 병원근무자는 28.4%, 종합병원 근무자는 21.3% 순이었다 (표 2). 연령별 분포는 24~26세 군이 50.3%로 가장 높았으며, 30세 이상인 군은 5.8%로 가장 낮았다. 직급별 분포는 실장급이 68.4%로 나타나 일

반 평치료사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의원의 근무자가 많기 때문으로 사려된다. 또한 경력별 분포는 3년 미만이 62.6%로 나타났다(표 1).

### 2. 업무조건

#### 1) 의료기관별 주당 최소, 최대 근무시간

조사대상자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최소 근무시간은 44시간에서 최대 51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어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원에서 최소 근무시간 51시간에서 최대 근무시간 72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시간에 따른 근무조건이 의원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근무시간은 의원근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반근무자의 주당 근무시간 48시간 보다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 2) 의료기관별 1일 근무시간

의료기관별 1일 근무시간을 보면 모든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조사대상 치료사에서는 평일 8~9시간,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특 성	구 분	사 례 (%)	특 성	구 분	사 례 (%)
성 별	남 자	28( 18.1)	직 급	실 장	106( 68.4)
	여 자	127( 81.9)		치 료 사	49( 31.6)
	계	155(100.0)		기 타	
		계		155(100.0)	
연 령	20세 미만		학 령	전문대졸	137( 88.4)
	21~23세	48( 31.0)		대학재학	17( 11.0)
	24~26세	78( 50.3)		대 학 졸	1( 0.6)
	27~29세	20( 12.9)		계	155(100.0)
	30세 이상	9( 5.8)			
	계	155(100.0)			
결 혼	미 혼	141( 91.0)	경 령	1년 미만	40( 25.8)
	결 혼	14( 9.0)		1~2년	26( 16.8)
	기 타			2~3년	31( 20.0)
	계	155(100.0)		3~4년	28( 18.1)
		4~5년		21( 13.5)	
		5년 이상		9( 5.8)	
		계		155(100.0)	
종 교	기독교	41( 26.5)			
	천주교	25( 16.1)			
	불 교	17( 11.0)			
	무 교	27( 17.4)			
	계	155(100.0)			

표 2. 의료기관별 조사대상수

구 분	취업의료기관수	조사대상자수(%)
종합병원	15	33( 21.3)
병 원	33	44( 28.4)
의 원	67	78( 50.3)
계	115	155(100.0)

표 3. 의료기관별 주당 최소, 최대 근무시간

구 분	주 당 최소 근무시간	주 당 최대 근무시간
종합병원	44	51
병 원	51	64
의 원	51	72

토요일 4~6시간, 일요일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경우 평일의 근무시간은 전체 33개소에서 모두 9~10시간이며, 토요일 근무는 66.7%가 4시간, 33.3%는 7~10시간의 근무로 평일과 거의 같았다. 일요일 근무에 있어서 휴무인 경우는 69.7%였고, 30.3%는 4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평일근무는 10시간 근무가 50.7%로 가장 높고, 9시간 근무가 28.3%였으나, 10~12시간의 근무는 20.9%순이었다. 토요일의 근무시간에 있어서 82.1%는 평일근무시간과 동일하였다. 또한 휴일에도 79%는 4시간의 근무를 하고 20.9%만이 휴무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대상자의 평균 근무시간은 9.5시간으로 나타나(표 5) 이를 종합하면 종합병원의 근무시간은 근로 기준법에 준한 법정근무시간이 잘 수행되었고, 30% 이상의 병원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이 지켜지

표 4. 의료기관별 1일 근무시간

의료기관	근무시간 구분	근무시간								
		휴 무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그 이상
종합병원 (15개소)	평일 (%)						7 (46.7)	8 (53.3)		
	토 (%)		9 ( 6.0)	6 ( 4.0)						
	일 (%)	15 (100.0)								
병 원 (33개소)	평일 (%)							23 (69.7)	10 (30.3)	
	토 (%)			22 (66.7)	1 (3.0)	3 (9.1)	4 (12.1)	3 ( 9.1)		
	일 (%)	23 ( 69.7)	10 (30.3)							
의 원 (67개소)	평일 (%)							19 (28.3)	34 (50.7)	14 (20.9)
	토 (%)		2 ( 3.0)	5 ( 7.5)	2 (3.0)	3 (4.5)	17 (25.4)	25 (37.3)	13 (19.4)	
	일 (%)	14 ( 20.9)	53 (79 )							
계		52	74	33	3	13	71	72	27	

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더욱이 80% 이상의 의원에서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근무시간의 구별이 없는 1일 평균 9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표 5) 적절한 근무시간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

3) 의료기관별 월보수액(상여금 제외)

종합병원의 상여금을 제외한 월평균 보수액은 317,000 원이였고, 그 분포는 26~30 만원 군이 39%, 36~40 만원 군이 36%의 순이었다. 병원에 있어서는 월 평균보수액은 266,000 원이며 26~30만원 군이 41%, 21~25 만원 군이 38%의 순으로 종합 병원에 비해 적었다. 의원에서는 월평균 보수액이 281,000 원이고, 26~30 만원 군이 46.2%, 20~25 만원 군이 37.2% 순으로 병원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표 6). 이는 근무지 환경과 휴가일수 등에서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을 임금에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또한 대상자의 평균임금 284,440 원은 어<sup>6)</sup>의 자료에 의한 전국물리치료사의 평균임금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불가상승과 산업부문 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을 미루어 볼 때 병원과 의원에서의 임금수준은 적어도 종합병원군의 급여액과 균형이 취해져야 된다고 사려된다(표 6).

(1) 경력별 월 보수액

경력 1년 미만인 군에서는 57.5%가 20~25만원 원이였고, 26~30 만원의 임금을 받는 대상자는 30%였다. 2~3년 경력 군인 경우 84%가 20~30 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을 종합해 보면 고경력자에게 고임금이 지급된다는 사회통념과 같이 나타났다. 특히 경력 1년 미만인 군에서 57%가 20~25 만원을 받고 있는 점은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 적은 것으로 사려된다. 또한 3년 이상의 경력자들은 각 근무처에서 경력에 따라 2년 미만의 경력자에 비해 임금우대 현상이 나타났다(표 7).

(2) 의료기관별 연간 상여금지급액

종합병원의 상여금 지급방법은 73.3%가 본봉에 대한 지급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병원은 36.3%, 의원은 20.9%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경우 63.3%, 의원의 경우 79.1%가 월급여 총액지급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병원에서의 임금산정 체계가 세분화와 재과화되어 있는 것으로 사려되며, 병원과 의원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사려된다. 상여금 급여액에 있어서는 종합병원에서는 본봉의 400% 이상을 지급하는 근무처가 40.1%로 나타났고, 의원에서는 월급여 총액의 100%를 지

표 5. 성별에 따른 1일 근무시간

성 별	근무시간						평균근무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11시간	12시간		
남 자(%)	8(28.6)	13(46.4)	4(14.3)	3(10.7)			9.5
여 자(%)	10(7.9)	58(45.7)	48(37.8)	10(8.0)	1(0.8)		9.48
계(%)	18(11.6)	71(45.8)	52(33.5)	13(8.4)	1(0.65)		9.48

표 6. 의료기관별 월보수액(상여금 제외)

단위 : 10,000원

의료기관	보수액							월평균 보수액
	20	21~25	26~30	31~35	36~40	41~50		
종합병원(%)		5(15.2)	13(39.4)	2(6.1)	12(36.4)	1(3.0)	31.7(100.0)	
병 원(%)	4(9.1)	17(38.6)	18(40.9)	2(4.5)	1(2.3)	2(4.5)	26.6(100.0)	
의 원(%)		29(37.2)	36(46.2)	3(3.8)	5(6.4)	5(6.4)	28.1(100.0)	
계(%)	4(2.6)	51(32.9)	67(43.2)	7(4.6)	18(11.6)	8(5.2)	28.4(100.0)	

표 7. 경력별 월보수액(상여금 제외)

단위 : 10,000원

경력	보수액						
	20	21~25	26~30	31~35	36~40	41~50	계
1년 미만(%)	4(10)	23(57.5)	12(30)		1(2.5)		40(100.0)
1~2년(%)		14(53.8)	9(34.6)		2(7.7)	1(3.8)	26(100.0)
2~3년(%)		10(32.3)	16(51.6)		4(12.9)	1(3.2)	31(100.0)
3~4년(%)		3(10.7)	19(67.9)	2(7.1)	3(10.7)	1(3.6)	28(100.0)
4~5년(%)		1(4.8)	7(33.3)	5(23.8)	(23.8)	(14.3)	21(100.0)
5년 이상(%)			4(44.4)		3(33.3)	2(22.2)	9(100.0)
계(%)	4(2.6)	51(32.9)	67(43.2)	7(4.6)	18(11.6)	8(5.2)	155(100.0)

급하는 근무처가 74.6%로 나타났다(표 8). 표 4와 5에서 나타났듯이 의원의 경우 근무시간이 타 직종에 비하여 많으므로 상여금 등의 방법으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사려된다.

(4) 의료기관별 휴가 일수

표 9에서 나타난 연간 휴가일수는 법정휴가 일수와 기타 휴가일수를 합친 날짜를 나타낸다.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8~14일이 60%, 7일 이내가 33.3% 나타났다. 병원의 경우는 7일 이내가 72.7%로 나타났으며, 휴가없이 명절만 휴무인 근무처도 18.1%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는 62.7%의 근무처가 휴가없이 명절만 휴무였고, 7일 이내가 32.8%로 나타났다(표 9). 이는 병, 의원에 있어 물리치료실 근무자 구성이 보조원 없이 치료사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가기간 동안 업무를 맡길 치료요원이 없고, 또한 근무처 수익감소 등으로 휴가를 허용하기 곤란한 것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겠다.

3. 업무환경 및 업무량

1) 의료기관별 치료실의 위치

종합병원내의 물리치료실 위치는 73.3%가 지상에 배치되어 있고, 26.7%가 지하실에 위치하고 있었다. 병원의 경우는 지상이 57.5%, 지하실이 42.4%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는 지상이 46.3%, 지하가 53.7%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의료기관 115개소 중에서 지하실에 위치한 물리치료실은 46.8%였고, 지상에는 53.2%가 배치되었다(표 10). 특히 의원의 경우에는 치료실의 지하실 사용이 더욱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의원의 협소한 진료공간 때문에 건물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사정공간인 지하실을

표 8. 의료기관별 연간 상여금 지급액

지급 방법	의료기관 연간 지급액	종합병원	병원	의원	계
		(%)	(%)	(%)	(%)
월 급 여 총 액 지 급	100%	2 (13.3)	20 (60.6)	50 (74.6)	72 (62.6)
	200%	1 (6.7)	1 (3.0)	3 (4.5)	5 (4.3)
	300%	1 (6.7)			1 (0.9)
	400%				
소계		4 (26.6)	21 (63.6)	53 (79.1)	78 (67.8)
본 봉 지 급	200%	2 (13.3)	11 (33.3)	13 (19.4)	26 (22.6)
	300%	3 (2.0)	1 (3.0)		4 (3.5)
	400%	4 (26.7)		1 (1.5)	5 (4.3)
	500%				
	600%	1 (6.7)			1 (0.9)
그이상		1 (6.7)			1 (0.9)
소계		11 (73.3)	12 (36.3)	14 (20.9)	37 (32.2)
총계		15 (100.0)	33 (100.0)	67 (100.0)	115 (100.0)

표 9. 의료기관별 연간 휴가일수

휴가일수 의료기관	7일 이내 (%)	8~14일 (%)	휴가없이 명절만 연다 (%)	총 계 (%)
종합병원	5(33.3)	9(60)	1(6.7)	15(100.0)
병원	24(72.7)	3(9.1)	6(13.1)	33(100.0)
의원	22(32.8)	3(4.5)	42(62.7)	67(100.0)
계	51(44.3)	15(13.0)	49(42.6)	115(100.0)

표 10. 의료기관별 근무처 내의 치료실 위치

지하지상층 구분 의료기관	지 하 층수 구분	지 상 층				총 계
		지상 1, 2층	지상 3, 4층	지상 그 이상	소 계	
종합병원 (%)	4(26.7)	5(33.3)	4(26.7)	2(13.3)	11(73.3)	15(100.0)
병원 (%)	14(42.4)	11(33.3)	8(24.2)		19(57.6)	33(100.0)
의원 (%)	36(53.7)	27(40.3)	4(6)		31(46.3)	67(100.0)
계 (%)	54(46.8)	43(37.4)	16(14.0)	2(1.7)	61(53)	115(100.0)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생각되나, 조도, 환기, 습도 등 제반 환경불량이 예상되어 물리치료사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환경은 치료장비의 부식으로 인한 수명단축을 초래하고, 환자의 치료환경에도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물리치료실은 가능한 한 지상층에 배치되어야 된다고 사려한다.

2) 의료기관별 치료실면적

의료기관별 평균치료실의 면적은 종합병원 군이 32.1평이며, 병원군이 16.6평, 의원군이 14.3평이었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60%가 20평 이하였고, 병원의 경우 15평 이하와 의원의 10평 이하가 각각 57%로 나타났다(표 11). 특히 의원에서는 79%가 평균면적(14.3평) 이하였는데, 이들 79%에 해당되는 의원의 경우 1일 평균 환자 36명(표 13)을 치료하기에는 좁은 공간이라 사려된다. 그러나 치료환자수에 따르는 이상적인 치료실 면적에 대해서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의료기관별 1일 물리치료 환자수

표 12는 의료기관별 1일 물리치료 환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40~60명 군이 46.7%

로 가장 높았으며, 20~40명 군이 20%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과 의원의 경우 20~40명 군이 각각 48.8%, 61.2%로 가장 높았다(표 12).

4) 의료기관별 성별 1일 환자수

성별에 따른 환자수는 남자가 56.6%로 여자가 43.4% 보다는 높았다(표 13). 특히 의료기관별 남자와 여자 환자의 비율을 보면 종합병원 63:37, 병원 51:49, 의원 52:48로 나타나, 종합병원에서 남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종합병원에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남자 입원 환자수가 많은 것으로 사려된다(표 13).

또한 1일 평균 치료 환자수는 종합병원이 70.6명, 병원이 47명, 의원 36.3명으로 나타났다(표 13). 특히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1일 평균 환자수가 최빈치 보다 높은 것은 치료실의 인적구성, 규모, 장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환자수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으로 사려된다(표 13).

5) 의료기관에 따른 질환별 1일 물리치료 환자수

표 14를 보면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질환별 1일 물리치료 환자수는 요통, 근육골격계 질환의 순서였다. 그러나 그다음 순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

표 11. 의료기관별 치료실의 면적

(단위 : 평수)

치료실 면적	10평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70	71-75	76-80	그이상	평균 치료실 면적
중합병원 (%)		4 (26.7)	5 (33.3)	1 (6.7)	1 (6.7)						1 (6.7)	1 (6.7)			1 (6.7)	1 (6.7)	32.1
병원 (%)	12 (36.4)	10 (30.0)	5 (15.1)	2 (6.0)	1 (3.0)		1 (3.0)		2 (6.0)								16.6
의원 (%)	38 (36.7)	15 (22.4)	8 (12.0)	1 (1.5)	2 (3.0)	1 (1.5)			1 (1.5)						1 (1.5)		14.3
계 (%)	50 (43.4)	29 (25.2)	18 (15.6)	5 (4.3)	4 (3.5)	1 (0.9)	1 (0.9)		3 (2.6)		1 (0.9)	1 (0.9)			2 (1.8)	1 (0.9)	17.2

표 12. 의료기관별 1일 물리치료 환자수

환자수	20미만	20~40	40~60	60~80	80~100	100~120	140 이상	계
중합병원 (%)		3 (20)	7 (46.7)	1 (6.7)	1 (6.7)	2 (13.3)	1 (6.7)	15 (100.0)
병원 (%)	3 (9.1)	16 (48.4)	9 (27.2)	2 (6.1)	1 (3.0)	1 (3.0)	1 (3.0)	33 (100.0)
의원 (%)	12 (17.9)	41 (41)	11 (11)		1 (1.5)	1 (1.5)	1 (1.5)	67 (100.0)
계 (%)	15 (13.0)	60 (52.4)	27 (23.5)	3 (2.6)	3 (2.6)	4 (3.5)	3 (2.6)	115 (100.0)

표 13. 성별 1일 물리치료 환자수

환자수	남자 환자수	여자 환자수	계	평균 환자수
중합병원 (%)	667(63)	392(37.0)	1059(100)	70.6
병원 (%)	916(59.1)	634(40.9)	1550(100)	47.0
의원 (%)	1272(52.2)	1162(47.7)	2434(100)	36.3
계 (%)	2855(56.6)	2188(43.4)	5043(100)	43.8

표 14. 의료기관별 질환에 따른 1일 물리치료 환자수

질환종류	요 통	근육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관절염	내 과	계
중합병원 (%)	368(34.7)	323(30.5)	258(24.4)	92( 8.7)	18(1.7)	1059(100.0)
병원 (%)	566(36.5)	563(36.3)	159(10.3)	247(15.9)	15(1.0)	1550(100.0)
의원 (%)	992(40.8)	709(29.1)	226( 9.3)	501(20.6)	6(0.2)	2434(100.0)
계 (%)	1926(38.2)	1595(31.6)	643(12.8)	840(16.7)	39(0.8)	5043(100.0)

여 종합병원의 경우 신경계질환(24.4%), 관절염(8.7%) 순이었고, 병원과 의원에서는 관절염이 각각 15.9%, 20.6%였고, 신경계질환이 각각 10.3%, 9.3%로 나타나 종합병원의 순위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경계 질환자가 진료장비나 시설이 우수한 종합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병, 의원에서 관절염 환자가 신경계 환자보다 다소 많은 이유는 환자 치료를 받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은 주거지 인근의 병, 의원을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된다(표 14).

6) 의료기관별 치료실 근무자 구성

의료기관 115개소 중에 보조원 없이 물리치료사만 근무하는 곳이 62.6%이며, 보조원과 물리치료사가

함께 근무하는 곳이 37.4%였다. 보조없이 근무하는 경우를 의료기관 증별로 보면, 의원이 71.6%, 병원이 54.5% 순으로 의원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40%)로 가장 낮았다. 종합병원이 낮은 이유는 물리치료사가 2인 이상 근무하는 곳이 많기 때문으로 사려된다. 또한 종합병원의 경우 보조원의 수가 병, 의원보다 많았다(표 15). 또한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물리치료사 1인 1일 평균 치료 환자수 28명은 여(1986)<sup>5)</sup>의 25명보다 높게 나타났고, 또한 표 16에서 종합병원과 병원의 1일 1인 평균 치료 환자수는 22.7명과 31.6명은 박<sup>1)</sup>의 12명과 19명 보다는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최소한 20명의 환자에 치료사 1인의 충원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사려된다.

7) 물리치료 1인이 1일에 치료하는 환자수

치료사 1인이 1일에 치료하는 환자수는 종합병원이 평균 22.7명, 병원이 평균 31.6명, 의원이 평균 27.9명으로 나타났다(표 16). 표 13과 비교할 때 병원의 경우 충분한 수의 물리치료사를 확보하고 있

표 15. 의료기관별 치료실 근무자 구성

의료기관 치료사수 보조원유무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계	
	(%)	(%)	(%)		
보 조 원 없 는 치 료 실	1	10 ( 30 )	43 ( 64.2 )	53 ( 46.1 )	
	2	4 ( 26.7 )	8 ( 24 )	5 ( 7.5 )	17 ( 14.8 )
	3	1 ( 6.7 )			1 ( 0.9 )
	4	1 ( 6.7 )			1 ( 0.9 )
	5				
소 계	6 ( 40 )	18 ( 54.8 )	48 ( 71.6 )	72 ( 62.6 )	
보 조 원 이 있 는 치 료 실	1	11 ( 33 )	12 ( 17.9 )	23 ( 20 )	
	2	4 ( 26.7 )	3 ( 9.1 )	6 ( 8.4 )	13 ( 11.3 )
	3	1 ( 6.7 )		1 ( 1.5 )	2 ( 1.7 )
	4	1 ( 6.7 )	1 ( 3.0 )		2 ( 1.7 )
	5	2			2 ( 1.7 )
	6	1			1 ( 0.9 )
소 계	9 ( 60 )	15 ( 45.5 )	19 ( 28.4 )	43 ( 37.4 )	
총 계	15 (100.0)	33 (100.0)	67 (100.0)	11 (100.0)	

표 16. 물리치료사 1인 1일 담당하는 환자수

의료기관 1일 담당환자수	종합병원 (%)	병 (%)	원 (%)	계 (%)
10이하		2 ( 6.1 )	3 ( 4.5 )	5
11-15	3 ( 20 )	1 ( 3.0 )	8 ( 12 )	12
16-20	1 ( 6.7 )	4 ( 12.1 )	12 ( 17.9 )	17
21-25	6 ( 40 )	5 ( 15.1 )	9 ( 13.4 )	20
26-30	4 ( 26.7 )	7 ( 21.2 )	10 ( 15 )	21
31-35	1 ( 6.7 )	3 ( 9.1 )	9 ( 13.4 )	13
36-40		3 ( 9.1 )	8 ( 12 )	11
41-45		1 ( 3.0 )	1 ( 1.5 )	2
46-50		4 ( 12.1 )	3 ( 4.5 )	7
그 이상		3 ( 9.1 )	4 ( 6 )	7
평균환자수	22.7	31.6	27.9	28.1

지 않으므로 병원군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의원근무자 보다는 더욱 직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되고 이에 개선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8) 의료기관별 물리치료사가 생각하는 1일 1인의 적정환자수

의료기관 근무자가 생각하는 1일 1인 적정 환자수는 15~25명이 80%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종합병원 근무자의 경우 15~20명이 88%로 가장 높고, 병원은 20~25명이 6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의원 근무자 중 25~30명이 36%로 종합병원이나 병원보다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치료사 혼자서 항상 많은 환자를 치료해 오고 있었기 때문으로 사려된다(표 17). 이를 성별로 보면 표 18과 같이 남자 치료사가 생각하는 1일 적정 환자수는 15~20명이 7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는 20~25명이 65.4%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여자 치료사들이 생각하는 1일 적정환자수는 남자 치료사 보다 높다

고 할 수 있었다(표 18). 이는 여자 치료사들의 의원 근무자들이 많은 것으로 간주할 때 병, 의원의 경영주가 치료실의 1일 치료 환자수로 치료사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인된 것으로 치료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생각이라 할 수 없다(표 18).

#### 4. 현근무지 인식

1) 의료기관별 치료실의 시설이나 구조에 관한 인식

현 근무지에 대한 시설이나 구조에 관해 긍정적인 인식은 의원이 57.7%, 병원이 40.8%, 종합병원이 17.3%의 순으로 의원근무자가 종합병원이나 병원 근무자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의 경우 83.1%에 해당하는 물리치료사가 자신이 직접 시설이나 구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 견해를 갖는 것으로 사려된다. 부정적 인식요인 중 치료실 면적확장이 종합병원은 48.5%로 가장

표 17. 치료사 1인 1일 치료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환자수

의료기관 \ 환자수	10명 미만	10명	15명	20명	25명	30명	35명	40명	계
	종합병원 (%)		3 (9.1)	12 (36.4)	17 (51.5)	1 (3.0)			
병원 (%)		1 (2.3)	7 (15.9)	22 (50)	8 (18.2)	5 (11.4)		1 (2.3)	44 (100.0)
의원 (%)	2 (2.7)	4 (5.1)	9 (11.5)	33 (42.3)	17 (21.8)	11 (14.1)		2 (2.6)	78 (100.0)
계 (%)	2 (1.3)	8 (5.2)	28 (18.1)	72 (46.5)	26 (16.8)	16 (10.3)		3 (1.9)	155 (100.0)

표 18. 성별에 따른 치료사가 생각하는 1인 1일 치료적정 환자수

성별 \ 환자수	10명 미만	10명	15명	20명	25명	30명	35명	40명	계
	남자 (%)		2 (7.1)	9 (32.1)	13 (46.4)	2 (7.1)	2 (7.1)		
여자 (%)	2 (1.6)	6 (4.7)	19 (15.0)	59 (46.5)	24 (18.9)	14 (11.0)		3 (2.4)	127 (100.0)
계 (%)	2 (1.3)	8 (5.2)	28 (18.1)	72 (46.5)	26 (16.8)	16 (10.3)		3 (1.9)	155 (100.0)

높았고, 병원과 의원은 각각 29.5%, 28.2%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19). 또한 치료실의 구조 변경을 원하는 치료사는 병원이 20.5%, 종합병원이 12.1%, 의원이 5.1%의 순으로 비교적 병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종합병원 근무자가 치료실의 면적이나 시설이 비교적 우수하지만 자기의 근무지 환경 개선에 있어 병, 의원 근무자 보다 더 진취적 사고와 개선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반면 병, 의원 근무자는 종합병원에 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현 치료실의 시설이나 구조에 관한 개선안과 발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사려된다(표 19). 이를 성별로 보면 표 20과 같다. 근무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여자가 48.1%이며, 남자가 39.3%로 여자 치료사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치료실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욕망은 남자가 14.3%, 여자가 10.2%로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표 20).

2) 성별에 따른 근무조건에 관한 인식  
성별에 대한 근무조건에 대한 인식에서 만족을 느

끼는 치료사는 남자가 25%이며, 여자는 15.8%로 남자가 높았으며 불만족요인 중 보수를 개선해서 근무하고 싶다가 여자(49.6%)와 남자(42.9%)에게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외의 불만요인으로는 남자는 처우 문제, 여자는 근무시간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표 21). 이러한 결과 남자의 임금이 여자에 비해 초봉에서부터 높기 때문에 사려되며, 남자에게는 자신의 발전에 관계되는 처우 문제, 여자에게는 여가 선용 등의 문제로 근무시간에 더 관심이 크기 때문에 사려된다. 이를 의뢰기관별로 보면 종합병원 21.2% 병원 4.5%, 의원 23.1%가 현 근무처에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의원에서 가장 높았다. 불만족 요인을 보면 공히 보수를 개선해서 근무하고 싶다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근무시간 문제로 옮기고 싶다에서 의원과 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히 월등히 높은 것은 이들의 의뢰기관에 근무시간이(표 4) 높게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표 22). 또한 이들을 경력별로 보면, 표 23과 같다. 만족은 경력 4~5년 군에서 38.1%로 가장 높았고, 1년 미만군에서는 가

표 19. 의뢰기관별 현 근무 치료실의 시설이나 규모에 관한 인식

인식	의뢰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만족하다		4(12.1)	6(13.6)	15(19.2)
보통이라 생각한다		5(15.2)	12(27.2)	30(38.5)
치료실 면적을 확장하고 싶다		16(48.5)	13(29.5)	22(28.2)
치료실 구조를 변경하고 싶다		4(12.1)	9(20.5)	4(5.1)
근무에 불편하다		4(12.1)	4(9.1)	7(9)
계		33(100)	44(100)	78(100)

표 20. 성별 현 근무 치료실의 시설이나 구조에 관한 인식

인식	성별	
	남자(%)	여자(%)
만족하다	6(21.4)	19(15.0)
보통이라 생각한다	5(17.9)	42(33.1)
치료실 면적을 확장하고 싶다	9(32.1)	42(33.1)
치료실 구조를 변경하고 싶다	4(14.3)	13(10.2)
근무에 불편하다	4(14.3)	11(8.7)
계	28(100)	127(100)

표 21. 성별에 근무조건에 관한 인식

만족여부	성 별		계
	인 식	남 자 여 자 (%) (%)	
만 족	만 족 하 다	7 20 ( 25 ) (15.8)	27 (17.4)
불 만족	처우문제로 옳기고 싶다	6 15 (21.4) (11.8)	21 (13.5)
	근무시간 문제로 옳기고 싶다	1 23 ( 3.6) (18.1)	24 (15.4)
	보수를 개선해서 근무하고 싶다	12 63 (42.9) (49.6)	75 (48.3)
	자영치료실로 독립하고 싶다	2 6 ( 7.1) ( 4.7)	8 ( 5.2)
	소 계	21 107 (75 ) (84.2)	128 (82.6)
총 계		28 127 (100) (100)	155 (100)

표 22. 의료기관별 근무조건에 대한 인식

만족여부	의료기관구분			계
	인 식	총 합 병원 (%)	병원 의원 (%) (%)	
만 족	만 족 하 다	7 2 18 (21.2) ( 4.5) (23.1)	27 (17.4)	
불 만족	처우문제로 옳기고 싶다	4 7 10 (12.1) (15.9) (12.8)	21 (13.5)	
	근무시간문제로 옳기고 싶다	2 5 17 ( 6.1) (11.4) (21.8)	24 (15.5)	
	보수를개선해서 근무하고싶다	19 27 29 (57.6) (61.4) (37.2)	75 (48.3)	
	자영치료실로 독립하고싶다	1 3 4 ( 3.0) ( 6.8) ( 5.1)	8 ( 5.2)	
	소 계	26 42 60 (78.8) (95.5) (76.9)	128 (82.5)	
총 계		33 44 78 (100) (100) (100)	155 (100)	

표 23. 근무경력별 근무조건에 대한 인식

만족여부	경 력						계
	인 식	1년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만 족	만 족 하 다	3 6 6 3 8 1 ( 7.5) (23.1) (19.4) (10.7) (38.1) (11.1)	27 (17.4)				
불 만족	처우문제로 옳기고 싶다	6 5 4 3 2 1 (15 ) (19.2) (12.9) (10.7) ( 9.5) (11.1)	21 (13.5)				
	근무시간 문제로 옳기고 싶다	11 6 3 3 1 (27.5) (23.1) ( 9.7) (10.7) (11.1)	24 (15.5)				
	보수를 개선해서 근무하고 싶다	18 9 16 16 10 6 (45 ) (34.6) (51.6) (57.1) (47.6) (66.7)	75 (48.3)				
	자영치료실로 독립하고 싶다	2 2 3 1 ( 5 ) ( 6.5) (10.7) ( 4.8)	8 ( 5.2)				
	소 계	37 20 25 25 13 8 (92.5) (76.9) (80.6) (89.3) (61.9) (88.9)	128 (82.6)				
총 계		40 26 31 28 21 9 (100) (100) (100) (100) (100) (100)	155				

장 낮았다. 불만족 요인 중에서는 보수를 개선해서 근무하고 싶다가 근무경력 년수와 관계 없이 가장 높았다. 그외의 요인으로는 1년 미만 군과 1~2년 군에서는 근무시간 문제, 2~3년 군에서는 처우 문제가 가장 높았다(표 23). 또한 고경력자 일수록 근무시간 문제보다는 처우 문제와 자영 물리치료실 개설문제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에

대한 애착이 커가는 것으로 사려된다.

#### IV. 결 론

부산시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지산간호보건 전문 대학 졸업자 중 155명을 대상으로 1988년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12일간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법을 교육한 후에 회수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특성

본 대상자 155명 중 여자 81.9%, 남자 18.0%로 여자가 많고, 직급은 실장이 68.4%, 일반치료사가 31.6%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은 1년 미만이 25.8%로 가장 높았으며, 2~3년이 20%, 3~4년이 18.1%, 1~2년이 16.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 중 의원 종사자가 50.3%로 가장 높았다.

### 2. 업무조건

1) 의료기관별 주당 최소, 최대 근무시간은 종합병원 44~51시간, 병원이 51~64시간, 의원이 51~72시간으로 나타났고, 종합병원은 일요일에 모두 휴무 하였으나, 병원은 30.0%, 의원은 79%가 일요일에도 4시간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료기관 월평균 보수액은 종합병원이 317,000원, 병원이 266,000원, 의원이 281,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평균 보수액은 284,40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별 월보수액은 고경력일 수록 높게 나타났고, 상여금 지급현황은 조사대상 의료기관 중 지급치 않는 의료기관은 하나도 없었으며, 종합병원은 본봉 지급(73.3%), 병원과 의원에서는 급여 총액지급(병원 63.6%, 의원 79.1%) 방법을 채택하였다.

3) 의료기관 휴가현황을 보면 법정휴가가 없었던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6.7%, 병원 18%, 의원 62.7%로 나타났다.

### 3. 업무환경 및 업무량

1) 의무기관별 치료실의 위치는 종합병원이 26.7%, 병원이 42.4%, 의원이 53.7%가 지하실에 위치하였으며, 치료실의 면적은 종합병원이 32.1평, 병원이 16.6평, 의원 14.2평으로 나타났다.

2) 의료기관별 1일 평균 물리치료 환자수는 종합병원이 70.6명, 병원이 47명, 의원이 36.3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환자보다 남자 환자가 많았다.

3) 의료기관별 질환에 따른 1일 물리치료 환자수는 종합병원의 경우 요통(34.7%), 근육골격계 질환(30.5%), 신경계 질환 순이고, 병원은 요통(36.5%), 근육골격계(36.3%), 관절염(15.9%)의 순으로서, 의원과 같은 순서로 나타났다.

4) 의료기관별 치료실 근무자 구성을 보면 모든

종합병원은 2인 이상의 물리치료사가 있었고, 병원은 물리치료사 1명인 곳이 30%이며, 의원은 64%로 나타났다.

5) 물리치료사 1인 1일 담당하는 평균 환자수는 28.1명이었으며, 의료기관별로 보면 병원이 31.6명, 의원이 27.9명, 종합병원이 22.7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6) 물리치료사 1인 1일 치료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환자수는 64.6%가 15~20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78.5%, 여자의 경우 61.5%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7) 의료기관별 현 근무 치료실의 시설이나 규모에 관한 인식에서 종합병원과 병원 근무자의 경우 치료실 면적확장 문제에 관심도가 높았고, 성별로 보면 현재 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자가(48.1%) 남자(39.3%)보다 높았다.

8) 근무조건에 관한 인식을 보면 남녀 모두가 보수를 개선하여 근무하고 싶다가 48.3%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별로 보면 종합병원(57.6%), 병원(61.4%)가 보수개선의 평균치(48.3%)보다 높게 나타났고, 의원에서는 근무시간 문제가 21.8%로 나타났다.

## 참고 문헌

1. 박찬의 : 서울시내 일부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효율성에 관한 실태조사. 연세대학원 보건학과, 1982
2. 보건사회부 : 보건사회백서. 1985
3. 성수원 : 물리치료사의 업무량과 이에 관련된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 1987
4. 신정순 : 의료적 재활의 현황과 대책. 사회복지지제66호, 1980
5. 어경홍, 이충휘 : 물리치료사의 직무 만족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협회지, 7(2), 1986
6. 오정희, 이기용 : 물리치료사의 작업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우석의기대잡지, 1: 33~42, 1970
7. 이명곤 : 부산지역 치과기공소 운영자의 직업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지산간호보건전문대, 1988
8. 이재학 : 한국 물리치료사의 양성 및 취업실태

- 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1982
9. Bell D :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 1976
10. Fombrun CJ, Tichy NM, Devanna MA :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pp 3~18, 1984
11. Rusk HA : Rehabilitation. JAMA 140, 1949